

LegalTimes

www.legaltimes.co.kr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우수콘텐츠잡지
2014



버클리 기숙사에서 꿈꾼 코리안 아메리칸 로펌 '리앤홍'의 성공비결



9 771976 488000

ISSN 1976-488X 정가 11,000원

(주)리걸타임즈

법무법인 현 김동철 대표의 경영전략

인터뷰 HKIAC 서울사무국 정선화 대표

IT와법 사물인터넷 시대의 법적 과제

동남아 금융 한류를 위한 제언



이행규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금 융은 돈의 흐름이다. 돈은 보
다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곳을 찾아다닌다. 지난해 국내 금융
기관의 동남아 진출은 그런 의미에
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
BS캐피탈은 미얀마, 캄보디아, 라
오스 소액대출업(Micro Finance)에
진출했고, 우리은행은 캄보디아에

서 소액대출업을 영위하는 Malis
Finance Plc.를 인수했다. IBK기업은
행은 캄보디아에 대표사무소를 설
립했다. 또 인도네시아에서는 하나
캐피탈이 현지 재벌그룹인 Sinar
Mas와 자동차 할부금융 합작법인
을 설립 중이고, BC카드가 인도네
시아 최대 국책은행인 Bank Mandiri
와 신용카드 프로세싱 합작사 설립
을 위한 MOU에 서명하였다. 한국
투자증권도 자카르타에 대표사무
소를 개설하고 현지 교두보를 확보
했다.

지점 전환 라이선스는 불발

미얀마에 대표사무소를 설치한
국내 은행들은 지난해 미얀마 정부
가 부여하는 지점 인가 전환 라이선
스를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일본, 싱가포르 등에 밀려 인가를

받지 못해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
그 외 국내 보험사, 카드사 등도 베
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등
지에 진출하기 위해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동남아는 매우 매력적인 시장이
다. 동남아 국가의 상당수가 평균
대출금리가 15~18%에 이르고 예금
금리는 6% 정도로 국내 금융기관의
1~2% 예대마진과는 비교가 되지 않
는다.

또 불교국가가 많은 동남아에서
는 금융기관 대출을 갚지 않는 것을
현세의 업(Karma)으로 여겨 부실채
권비용이 매우 낮은 편이다. 캄보디
아 소액대출업의 부실채권비용은
0.2~0.3%밖에 되지 않는다. 동남아
소액대출업에 국내 금융기관들이
앞다퉈 진출하는 이유가 이해되는
대목이다.

부실채권비용 0.2~0.3%

금융기관이 해외진출 지역
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해당 국
가에 대한 정보와 지식, 성장잠
재력, 진입장벽, 정치적 리스
크, 법적 안정성, 관련 시장의

“ 부실채권비용 적고, 대출금리 15~18%
동남아 금융시장은 매우 매력적인 시장 ”

경쟁, 현지 정부의 인센티브, 소비자 행동이나 근로윤리 등과 같은 문화적 요소를 입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동남아 국가들은 일정한 편차를 보이지만, 대체로 성장잠재력이 높고 진입장벽이 낮으며 경쟁이 심하지 않다는 특징이 있다. 참고로 캄보디아의 경우 대부분의 금융업종에 외국인 지분한도가 없고 자본금 요건 이외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존재하지 않는다.

반면 정치적 리스크가 높고 법적 안정성이 낮으며 정부 정책의 비일관성과 부패지수가 높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間に 고도성장을 이룩한 한국에 대한 학습의지와 매력적인 문화 한류에 힘입어 전반적으로 매우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국내 금융기관은 이러한 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필요가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선도기업 우위(first-mover advantage)를 향유할 수 있는 전략적 결단도 필요하다고 본다.

선도기업 우위도 노려볼 만

민간 금융기관은 수출입은행의 EDCF, KOICA(한국국제협력단)의 ODA 자금 등 정책금융과 동반 진출함으로써 리스크를 줄이면서도 새로운 금융시장에 진출하는 기회를 엿볼 수 있다. 민간 금융기관이 자체 역량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해외 SOC 사업에 대해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등과 같은 정책금융기관이

“태국 정부 만류 불구 IMF때 철수한 한국 금융기관 아직 진출 재개 못해”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국내 금융기관의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최근 수출입은행이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등을 전략개도국으로 선정하고 해당 국가의 SOC 사업에 EDCF 복합금융, 다자개발은행(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협조융자 등을 활용하여 참여,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 동남아는 발전소, 도로, 항만 등의 SOC 사업 필요성이 매우 크고, 중국과 일본, 호주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우리 금융기관들도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SOC 수요 많은 동남아

KOICA는 최근 한국거래소가 캄보디아 정부와 거래소를 합작으로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캄보디아 증권시장의 발전을 위해 증시발전 지원 용역사업을 발주하였다. 이러한 개발경험교류사업(Development Experience Exchange Program, DEEP)은 캄보디아 자본시장의 법제를 우리에게 친숙한 방식으로 구성함으로써 국내 금융기관의 현지 진출은 물론 우리 자본시장과의 교류도 더욱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거래소가 합작으로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는 인근 라오스의 증권법도 우리 법무부가 지원하여 만들어져 지난 2013년부터 시행 중이다.

그런데 아쉽게도 캄보디아나 라오스 자본시장에 진출한 순수 국내 증권회사가 현재로서는 없다(캄보디아에서 영업 중인 동양증권캄보디아는 최근 대만계 유안타증권의 현지법인이 되었다). 캄보디아의 경우 우량한 은행이나 정부소유기업들(State Owned Enterprises)이 많고 현재 상당수가 IPO를 준비 중이다.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국내 투자자들은 이러한 투자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국내 금융기관이 동남아 진출을 함에 있어 또 하나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진출 초기부터 곧바로 수익이 날 수는 없을 것이고 오히려 몇 년간은 적자를 볼 가능성이 높다.

신흥시장 진출은 high risk, high return의 투자전략이 부합되는 영역이다. 1997년 외환위기 때 태국 정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철수한 국내 금융기관은 태국 금융시장에 아직까지도 진출을 재개하지 못하고 있다. ■